

머니투데이

보인고 교사들, 아이들 행복한 학교생활 위해 뭉쳤다

B&C 고문순 기자 | 입력: 2014.06.03 15:48

보인고의 열혈 교사들이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뭉쳤다.

보인고 김석한 이사장의 인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공부만 시키는 자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고민 하에 뭉친 교사들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분명 학교가 고칠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싫증내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등교가 기다려지는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뜻이 맞는 교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자발적으로 교사 모임을 만들었고 홍보기 획팀, 진학 T/F팀, 교사 독서모임, 학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모임, 교육과정연구팀, 교사 장학회, 매주 담임회의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는 부정적 시선,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의견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상의하고 생각을 추진시키지 못하는 제약을 넘어서 열정적인 교사들에 대한 김 이사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장, 교감 이하 모든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 속에 새로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풍토가 확립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보인고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되고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주체성, 자주성, 창의성 발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즐거운 이벤트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체험교육 및 인성교육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며 스포츠클럽 구기대회, 학생회 활성화 등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활동이 크게 늘었다.

매일 아침 3분 스피치 등 다양한 학년별 프로그램 및 학부모 평생교육, 담임교사 1日1人 상담 프로젝트 등도 보인고가 갖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었다.

인성교육의 결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진정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댄 열혈 교사들의 이 같은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